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전망과 주변국의 석유수급 상황 (상)

- 통 상 산 업 부 -
- 석 유 개 발 공 사 -

1. 머리말

'96년도 국제 원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는 그동안 국내 석유 소비가 급증함으로써 국내 정제능력이 '90년 이후 연평균 약 16%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원유도입 물량의 증가와 함께 국제 원유가의 상승이 상호 작용하여 외화의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제능력의 증대가 반드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현재 세계 2위의 석유소비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석유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비해 역내 석유정제능력은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으며, 국가간에도 소비성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대규모의 국제 교역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싱가포르를 자국의 내수 규모의 2배에 이르는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잉여물량을 인근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벵커링, 중계무역 등 역내 중심적 석유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됨. 즉, 우리나라의 증강된 정제능력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제산업의 세계화와 국가경제에의 기여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석유 제품 공급 중심센터로서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석유산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석유수급 및 교역상황을 살펴보고자 함.

2.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 전망

가. 정제능력 전망

○ 우리나라의 석유정제능력은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90년 이후 연평균 약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6년중 대폭 증설 (CDU 기준 62만b/d)로 현재는 내수를 초과한 상태에 있어 향후 잉여물량의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정제설비 증설 전망

(단위 : 천b/d)

	1996	1997	1998	2000	2005
상압정제설비	1,899	2,370	2,370	2,442	2,487
감압정제설비	149	253	253	353	353
코킹	17	17	17	17	17
접촉분해설비	63	145	145	181	181
수소화분해	76	128	128	128	128
접촉개질	97	97	97	97	97
나프타처리	202	211	211	220	220
중질유분처리	371	480	525	525	525
경유탈황	0	81	81	127	127
잔사유탈황	27	52	52	199	199

<자료> East-West Center(EWC)

- 정제설비 증설 전망을 보면 2000년까지는 큰 증가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3~4년간은 정제능력이 내수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환경규제 강화와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유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분해 및 탈황설비 등 2차 정제설비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나. 석유 수입 전망

- 위와 같은 정제설비 전망하에서 우리나라의 제품 생산량 전망은 다음 표와 같이 '97년 이후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임.

제품별 생산전망

(단위 : 천b/d)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중유	LPG	기타	계
1997	232	283	611	251	758	71	38	2,244
1998	259	294	616	247	722	70	39	2,247
2000	320	327	680	254	619	73	39	2,312
2005	322	360	781	312	715	87	38	2,614

주 : 2000년까지 생산량은 CDU기준 가동을 약 95%에서 전망

- 한편 내수는 다음 표와 같이 '97년 이후 연평균 3.8%의 증가가 전망됨.

제품별 내수 전망

(단위 : 천b/d)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중유	LPG	기타	계
1997	204	238	516	367	554	168	44	2,091
1998	224	250	550	373	579	171	45	2,192
2000	260	276	631	383	646	181	47	2,424
2005	315	339	738	402	700	207	30	2,731

<자료> East-West Center(EWC)

- 따라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생산이 국내 수요 증가를 따르지 못해 상당한 규모의 공급 부족이 예상됨.

- 유종별로 생산과 내수의 차이를 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잉여물량으로 나타나는데, 물량으로 볼 때는 경유와 중유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반면, 나프타와 LPG는 큰 폭의 공급 부족이 예상됨.

- 그러나 이는 단순히 생산과 내수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이 수치들은 해외요인(수입 및 수출)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임.

제품별 생산-내수 차이

(단위 : 천b/d)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중유	LPG	기타	계
1997	28	45	95	-116	204	-97	-6	153
1998	35	44	66	-126	143	-101	-6	55
2000	60	51	49	-129	-27	-108	-8	-112
2005	7	21	43	-90	15	-120	8	-117

다. 석유제품 수출 전망

- 한편, 실제 수출은 이상과 같은 단순하게 계산된 잉여물량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데, 이는

- ① 설비 증설로 국내생산이 확대된 일부품목의 물량이 곧바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입을 대체하게 되며,
- ② 등유 및 LPG의 경우 계절적인 수요 집중으로 동절기 수입이 불가피하고,
- ③ 경유, 중유 등에서는 황함량 등에 따라 수출입이 동시에 일어나며,
- ④ 또 이와 관련하여 고도화 설비 확대 등으로 이제까지 수출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일부 품목의 수출을 조절함으로써 수출을 축소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 ⑤ 실제 수출량은 우리나라의 잉여물량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주로 중동 및 동남아 시장) 제품 수급상황, 수입국의 제품규격 및 환경규제, 석유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책, 그리고 가격 경쟁력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EWC에서 작성한 수출 및 수입전망은 아래의 표와 같음.

석유제품 수출전망

(단위 : 천b/d)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중유	LPG	기타	계
1997	28	68	110	15	293	5	2	521
1998	35	65	90	11	243	3	2	449
2000	60	51	108	16	114	5	2	356
2005	7	21	43	7	99	2	8	186

주) 수출에 병커링은 제외

- 이상의 전망치는 EWC 자체 방식에 따른 전망치로서 우리나라의 실제 수출입 물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입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이상의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출입 전망을 비교시 향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한 주제품은 경

석유제품 수입전망

(단위 : 천b/d)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중유	LPG	기타	계
1997	0	23	15	131	89	102	8	368
1998	0	21	24	137	100	104	8	394
2000	0	0	59	145	141	113	10	468
2005	0	0	0	97	84	122	0	303

<자료> East-West Center(EWC)

유와 중유 등이며, 반면 수출 물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96년의 우리나라 경유, 중유의 수출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음.

경유, 중유 국별 수출실적 (1996)

(단위 : 천배럴, %)

경 유		중 유	
국 가	물량(비중)	국 가	물량(비중)
일 본	13,877 (25.6)	중 국	17,259 (41.6)
태 국	12,153 (22.4)	일 본	12,170 (29.3)
중 국	12,044 (22.2)	홍 콩	3,551 (8.6)
홍 콩	9,523 (17.6)	미 국	3,330 (8.0)
말레이시아	1,550 (2.9)	싱 가 포 르	2,784 (6.7)
싱 가 포 르	918 (1.7)	C I S	643 (1.6)
기 타	4,143 (7.6)	북 한	607 (1.5)
		필 리 핀	449 (1.1)
		대 만	176 (0.4)
		기 타	522 (1.3)
계	54,208	계	41,491

<자료> 석유개발공사 석유수급연보 ('97)

3. 주변국의 석유수급 상황

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1) 수요전망

가) 현황

○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한국, 중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석유소비도 유럽 및 미주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지역은 '85년~'95년 사이에 연평균 5.4%의 소비 증가율을 보였으며, '96년도 기준으로 18,198.9천b/d를 소비하여 북미지역 다음의 제 2의 석유다소비 지역임.

* BP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년부터 이지역의 석유소비가 유럽지역을 추월

지역별 석유소비

(단위 : %)

	북미	중남미	유럽	구소련	중동	아프리카	아·태	계
1992	29.5	5.6	22.8	10.4	5.4	3.1	23.2	100.0
1995	29.8	6.1	22.6	6.3	5.7	3.2	26.3	100.0

나) 전망

○ 앞으로도 인구 증가, 산업화의 가속,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 등으로 석유소비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지속

아시아의 석유제품 수요 (1985-2010)

(단위 : 천b/d)

	LPG	나프타	휘발유	항공유	경유	중유	기타	합계	BK GO	DBCrude	BK FO
1985	818.0	761.6	1,637.8	1,201.0	2,524.9	2,857.0	422.6	10,223.0	39.6	400.3	293.3
1986	872.8	699.0	1,743.6	1,233.1	2,678.6	2,935.7	462.5	10,725.4	41.7	425.0	347.6
1987	913.0	873.3	1,814.3	1,304.5	2,933.4	2,891.2	480.7	11,210.4	62.1	403.5	344.8
1988	902.0	916.2	1,927.2	1,377.7	3,168.3	3,193.4	507.2	11,992.9	61.3	499.6	381.8
1989	987.1	972.4	2,085.0	1,428.7	3,449.8	3,365.7	528.8	12,817.2	54.5	526.3	413.7
1990	1,034.0	1,010.2	2,219.7	1,508.9	3,665.5	3,588.7	530.1	13,557.1	62.4	562.8	454.1
1991	1,112.7	1,117.1	2,296.6	1,535.4	3,907.4	3,687.0	550.9	14,207.2	68.5	560.6	498.5
1992	1,190.4	1,248.1	2,438.8	1,615.7	4,247.3	3,808.7	579.8	15,128.8	76.1	530.1	531.1
1993	1,274.3	1,291.8	2,648.7	1,725.1	4,549.7	3,724.1	596.9	15,810.6	87.6	438.9	575.4
1994	1,336.6	1,483.9	2,761.8	1,806.2	4,731.5	3,978.8	629.4	16,728.1	95.5	546.0	637.7
1995	1,412.0	1,617.9	2,906.1	1,941.9	5,116.1	3,887.9	638.9	17,520.8	88.2	457.2	594.5
1996	1,488.5	1,622.1	3,046.9	2,004.1	5,436.5	3,947.1	653.7	18,198.9	96.1	434.2	612.4
1997	1,553.5	1,708.5	3,184.7	2,099.7	5,731.5	4,028.7	674.3	18,980.8	96.6	416.9	631.2
1998	1,641.8	1,769.4	3,340.0	2,195.1	6,034.6	4,101.7	696.2	19,778.8	97.7	403.2	652.4
2000	1,811.3	1,899.3	3,674.1	2,393.9	6,646.5	4,208.1	731.7	21,365.0	103.1	389.9	700.8
2005	2,205.1	2,275.6	4,558.4	2,869.9	8,180.1	4,423.4	828.2	25,340.7	115.0	356.7	760.5
2010	2,704.9	2,496.8	5,391.0	3,396.1	9,713.5	4,750.6	933.6	29,386.5	124.2	319.9	828.1

<연평균 성장률> (AAGR)

1985-1995	6.6%	10.1%	5.6%	4.6%	6.6%	2.6%	4.4%	5.4%	11.2%	(0.08%)	8.9%
1995-2000	5.1%	3.3%	4.8%	4.3%	5.4%	1.6%	2.7%	4.0%	3.2%	(3.1%)	3.3%
2000-2005	4.0%	3.7%	4.4%	3.7%	4.2%	1.0%	2.5%	3.5%	2.2%	(1.8%)	1.6%
2005-2010	4.2%	1.9%	3.4%	3.4%	3.5%	1.4%	2.4%	3.0%	1.6%	(2.2%)	1.7%

<자료> East-West Center, 1996

* BK GO : BUNKER GASOIL, DB CRUDE : DIRECT BURNING OF CRUDE, BK FO : BUNKER FUEL OIL

* 제품별 수요에는 BK GO, DB CRUDE, BK FO 포함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세기말에 이르면 이지역이 북미지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석유소비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중장기적인 석유 소비 증가율을 보면 '95~2000년 사이에는 4.0%, 2000~2005년 사이에는 3.5%. 2005~2010년 사이에는 3.0%의 소비 증가가 전망 됨.

다) 유종별 수요전망

- 유종별로는 취사용 연료 공급 확대, 석유화학 설비 확장 및 산업화에 따른 수송부문의 소비 신장 등으로 LPG 및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가 타 유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원유생산 전망

가) 현황

- '95년 기준으로 아·태지역의 원유 수요는 17,521천b/d이었으며, 역내 원유 생산량은 7,006천b/d이었음.
- 이에 따라 수요의 59%인 10,358천b/d를 타지역으로부터 순수입하였으며, 수입원유의 75%인 7,780천b/d를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하였음.

나) 전망

- 향후 아·태지역은 매장량 감소 및 신규 발견의 저하로 2000년 이후 생산량이 체감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타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타지역으로부터 역내 원유 수요의 약 70% 이상 수입이 불가피 해지고, 특히, 중동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의 원유 수출여력이 정체 또는 체감함으로써 대중동지역 원유수입 의존도가 거의 9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아·태지역 원유 수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천b/d)

	1995	1997	2000	2005	2010
원유 수요	17,521	18,981	21,365	25,341	29,386
원유 생산	7,006	7,201	7,320	7,025	6,737
원유 수입	10,358	11,952	12,965	17,071	20,730
수입 의존도	59%	63%	61%	67%	71%
중동원유 수입	7,780	9,268	10,239	14,866	18,544
중동원유 수입의존도	75%	78%	79%	87%	89%

<자료> East-West Center 1997

3) 석유정제능력 전망

가) 현황

- 상압정제시설 기준으로 17,968천b/d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내 제품수요 18,198.9천b/d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역내 정제능력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 편재되어 있으며, 역내에서 최대 석유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의 정제능력이 전무하거나 일천함으로써 각국이 자국의 정제능력 증강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아시아 총 정제능력

(단위 : 천b/d)

	1996	1997	1998	2000	2005
상압정제설비	17,968	18,638	18,982	20,303	25,460
감압정제설비					
코킹	438	505	508	539	568
접촉분해	2,625	2,908	2,930	3,260	3,761
수소화분해	658	824	824	958	1,237
열분해/비스브레이크	686	686	695	721	794
접촉개질	1,843	2,021	2,095	2,103	2,396

<자료> East-West Center 1997

나) 전망

- 향후의 석유 소비 급증에 대비하여 각국이 원유처리

능력의 확충, 석유제품 소비의 경질화에 대비한 2차 정제시설의 확충, 원유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중동 원유에 맞는 정제설비의 신·증설 등 정제능력의 증강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역내 정제능력은 2000년에 20,303천b/d, 2005년에 25,460천b/d로 증대될 전망이다.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인도 등의 정제 능력 증강계획이 고도화 기술 및 외국 자본 유치의 어려움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역외로부터의 제품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4) 석유 수급 전망

가) 현황

○ 급증하는 석유 수요에 비해 정제능력의 부족으로 아·태지역은 1백만b/d 이상을 역외로 부터 순수입 하고 있음.

아·태지역의 역외 석유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b/d)

	1990	1993	1994	1995
역외수입	1,548.1	1,661.7	1,557.5	1,502.0
역외수출	192.6	181.6	478	351.5
순수입	1,355.5	1,480.1	1,079.0	1,150.5

* world Oil Trade (96) 자료발췌 재구성

○ 역외 석유제품 수입은 역내에서 정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인도 및 동남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 대한 주요 석유 제품수출국으로는 동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동지역이 원유와 함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음.

○ 아·태지역의 총괄적 석유제품 수급을 보면, 역내 각 국가들은 '95년 기준으로 14,748천b/d를 생산하였음. 반면 수요 (17,064천b/d) 부족분은 역내의 국가들간의 교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아·태지역은 역내 정제능력과 고도화시설의 부족, 정제능력의 지역적 편재로 인하여 국가간 수급균형을 위해 비교적 대규모의 석유제품이 교역되고 있음.

아·태지역의 지역별 석유제품 수입현황

(단위 : 천b/d)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구소련	계
1994	296.9	66.8	1,035.5	46.2	48.1	1,557.5
1995	181.8	49.2	1,304.7	47.2	24.4	1,502.0

* world Oil Trade (96) 자료발췌 재구성

○ 유종별 수급현황을 보면

LPG

취사용 연료 수요의 급성장으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6.6%의 급속한 수요 신장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간에 매우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져 전체 수요량의 약 65%가 국가간 수출입에 의해 충당되었음. 특히, 역내의 LPG생산량이 수요의 약 55%에 불과하여 역외 지역으로 부터 대규모의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음.

아시아 석유 수급 현황 (1995)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소비
L P G	776.1	769.3	141.8	1,412.0
나 프 타	1,161.2	774.4	321.3	1,617.9
휘 발 유	2,787.0	327.0	249.6	2,906.1
등 유	1,714.6	523.6	241.8	1,941.9
경 유	4,551.4	1,156.3	596.6	5,116.1
중 유	3,183.8	914.3	631.9	3,431.7
기 타	573.9	159.0	91.4	638.9
합 계	14,748.0	4,623.7	2,265.5	17,064.6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수출입 자료는 역내외에서 이루어진 역내 각국 교역량의 단순 합계임.

나프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급속한 석유화학산업 확장으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10.1%의 급속한 수요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요의 약 68%가 국가간의 교역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약 30%가 역외지역으로부터 순수입되고 있음.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중동국가들이 이 지역에 대한 주요 나프타 수출국이며, 역내 수입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역내 국가중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일본은 *Shosha*사를 통해 중동으로부터 기간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음.

휘발유

역내 국가들의 산업화에 따른 수송수요 및 소득증가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5.6%의 다소 높은 소비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휘발유의 공급은 전체 석유제품 수요중 휘발유 소비가 약 17% 선으로 다소 비중이 낮고,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제능력 증강으로 인해 타 유종에 비해 안정적이었는데 전체 수요의 약 20%가 국가간의 교역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역외순수입은 77.4천b/d로써 전체 수요의 3% 수준이었음. 역내 국가들중 한국과 일본, 호주는 여름 성수기나 정유공장 정기보수시에 계절적인 휘발유 구매를 하고 있으며, 이중 일본은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중동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음. 대만은 매일 싱가포르 시장에서 대규모의 개질휘발유를 구매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수요량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음.

경유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산업화와 수송수요의 증가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6.6%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유의 소비비중도 약 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성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지역은 -20~-5°C 사이의 저유동점 경유가 필요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도 기후지역에 위치하여 6~9°C의 유동점이 비교적 높은 경유를 필요로 함.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거래되는 경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계절적으로도 상당한 수요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전체 수요의 약 34%인 1,752.9천b/d가 국가간의 교역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약 23%가 역외로부터 순수입되었음. 경유의 교역량은 이 지역의 전체 석유제품 교역량중 약 25%에 해당함. 이 지역은 전세계로부터 경유의 수출시장이 되고 있으며, 북서 유럽, 지중해, 미국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음.

항공유 (등유)

경제성장에 따른 수송수요의 증가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난방용, 취사용 수요의 증가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4.6%의 수요 증가세를 보였다. 이 지역에서 항공유는 상업용 항공연료용, 조리 및 등화용 SKO (주로 인도), 난방용 DPK (북아시아, 항공유로도 사용 가능), 난방용 (PK)으로 사용되고 있음. 전체 수요량의 약 40%가 국가간의 교역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수요의 약 15%가 역외로부터 순수입되고 있음. 역외 수입은 주로 중동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중유

산업용 수요 증가에 따라 '85~'95년 사이에 연평균 2.6%의 수요 증가를 보였다. 해상운송의 발전에 따른 병커링 수요의 증가 등으로 국가간 교역이 전체 수요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외로부터의 순수입은 전체 수요의 약 8%로 타 유종에 비해 적은 규모임.

역내 국가들중 한국과 일본은 황함량 2% 이하의 중,

저유황 중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시아 고유황 중유의 주요 공급국이 되고 있음. 역의 주요 공급국은 중동지역과 미국 서부해안 지역임.

나) 전망

○ 향후에도 아·태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태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석유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지역은 '95~2000년 사이에 연평균 4.0%, 2000~2005년 사이에 3.5%, 2005~2010년 사이에 3.0%의 수요증가를 기록함으로써 금세기말에는 북미지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지역으로 부상이 전망되고 있음.

○ 석유제품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정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역내 각국들이 자국의 정제능력 증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역외 수입의존도는 '95년도의 9.28%에서 2000년 13.8%, 2005년 9.3%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게 됨.

○ 그러나, 향후 정제능력의 절대부족이 예상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국가의 정제능력 증강이 각국의 보유 자본 및 기술의 부족과 외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 추진중인 계획마저 지연되고 있어 역외로 부터 상당한 수준의 석유제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음.

○ 유종별 수급전망을 보면

LPG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청정연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됨.

이에 따라 역내 정제능력의 확장이 LPG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역외로 부터 수요 증가에 비례한 대규모 수입 증가가 예상됨.

나프타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석유화학 산업 성숙과 중국 등 일부 후발 국가들의 설비의 신증설 및 본격 가동으로 향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인 수요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역내 나프타 수요의 약 25~30%가 역외 순수입에 의해 충당이 되나, 2005년 이후 역내 생산이 다소 증가하여 역외 순수입 의존도가 약 2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지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나프타 수입원이 될 것임.

휘발유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경질유 수요의 증가로 향후에도 4%수준대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제능력 증강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휘발유 수급은 2000년까지 거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며, 2005년경에는 오히려 소폭의 공급 과잉현상을 낳음으로써 114천b/d 순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역내 거래 휘발유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만이 유연휘발유의 판매를 중지하였으나, 2000년까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도 유연휘발유의 판매를 중지할 예정임.

경유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 수송용, 난방용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보이게 되나 2000년대에 들면 소득 증가 등에 따른 경질유 수요의 증가로 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역내 경유수급 격차가 점차 해소되어 역외

석유 수급 전망 (1997)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928	750	128	1,551
나 프 타	1,271	600	163	1,708
휘 발 유	3,224	269	312	3,181
등 유	1,933	408	242	2,099
경 유	5,079	1,162	543	5,716
중 유	3,363	942	690	3,615
기 타	605	153	64	692
합 계	16,422	4,285	2,141	18,563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수출입 자료는 각국의 역내의 수출입량의 단순 합계임.

석유 수급 전망 (1998)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974	791	132	1,639
나 프 타	1,301	610	142	1,770
휘 발 유	3,340	300	302	3,341
등 유	2,007	437	235	2,150
경 유	5,239	1,293	512	6,024
중 유	3,353	999	650	3,703
기 타	628	150	65	713
합 계	16,843	4,579	2,038	19,340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수출입 자료는 각국의 역내의 수출입량의 단순 합계임.

수입의존도가 2000년에는 15.3%, 2005년에는 약 9.0%의 역외 수입의존도를 보일것으로 예상됨.

항공유 (등유)

천연가스, LPG 등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에 따라 취사용 및 등화용, 난방용 등유의 수요 증가가 둔화됨으로써 타 유종에 비해 다소 낮은 3%수준대의 수요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역내 정제능력의 증강에 따라 역외 수입의존도는 '95년도의 약 12%에서 2000년에 약 8%로, 2005년에

석유 수급 전망 (2000)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1,067	873	132	1,808
나 프 타	1,402	650	153	1,899
휘 발 유	3,645	324	300	3,670
등 유	2,204	388	199	2,393
경 유	5,631	1,504	490	6,646
중 유	3,456	924	601	3,819
기 타	649	157	57	749
합 계	18,055	4,821	1,931	20,985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수출입 자료는 각국의 역내의 수출입량의 단순 합계임.

석유 수급 전망 (2005)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1,355	1,024	176	2,201
나 프 타	1,802	753	280	2,276
휘 발 유	4,668	185	300	4,554
등 유	2,743	339	213	2,869
경 유	7,437	1,317	575	8,180
중 유	3,873	975	779	4,069
기 타	780	122	75	827
합 계	22,658	4,716	2,398	24,975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수출입 자료는 각국의 역내의 수출입량의 단순 합계임.

는 약 4%로 감소가 전망됨.

중유

향후 발전용 및 산업용 중유 수요의 석탄 및 천연가스 대체 추진 등 에너지 소비의 경질화로 향후 중유 수요의 정체가 예상 되나, 전반적인 국제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병커링용 수요와 산업용 수요를 중심으로 2%수준대의 완만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완만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유는 2000년 이후에야 역내 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됨으로써 역외 수

석유제품 수요 (1985-2010)

(단위 : 천b/d)

	LPG	나프타	휘발유	항공유	경유	중유	기타	합계	BKGODB	Crude	BK FO
1985	50.8	48.9	304.7	82.0	456.5	656.2	99.4	1,698.6	-	138.2	34.0
1986	64.2	44.0	360.6	82.0	516.4	692.7	110.4	1,870.3	-	143.7	38.0
1987	60.4	70.4	374.6	81.3	596.8	705.9	116.1	2,005.6	-	136.9	41.6
1988	70.1	78.5	411.6	76.3	626.6	731.0	121.3	2,115.4	-	140.0	43.7
1989	75.1	89.1	456.4	76.5	692.2	743.5	125.5	2,258.3	-	139.3	47.8
1990	80.7	92.7	466.3	73.7	662.0	728.0	122.5	2,225.8	-	109.6	53.3
1991	97.1	105.5	513.8	80.6	737.4	724.7	128.2	2,387.4	-	92.2	54.5
1992	107.8	103.5	573.1	85.2	834.5	738.4	145.6	2,588.1	-	85.3	49.7
1993	140.7	114.4	685.0	90.8	940.0	750.0	153.5	2,874.4	-	90.0	52.8
1994	172.4	140.0	685.0	97.4	965.0	777.0	166.3	3,003.1	-	110.0	54.0
1995	210.5	153.0	705.0	102.6	1,034.6	783.9	175.1	3,164.7	-	105.0	56.0
1996	230.0	163.0	750.0	112.0	1,105.0	791.0	182.0	3,333.0	-	99.0	56.4
1997	250.0	177.8	785.0	120.2	1,185.0	804.8	190.0	3,512.8	-	98.0	56.8
1998	271.8	189.1	834.1	129.0	1,263.4	815.7	198.0	3,701.0	-	96.0	57.2
2000	320.0	208.0	955.0	146.0	1,425.0	836.0	215.0	4,105.0	-	93.0	58.0
2005	450.0	358.0	1,324.7	138.0	1,875.0	912.0	250.0	5,362.7	-	90.0	67.0
2010	622.5	410.0	1,600.0	224.0	2,400.0	970.4	286.4	6,514.0	-	85.0	70.4

<연평균 성장률> (AAGR)

1985-1995	15.3%	12.1%	8.7%	2.3%	8.5%	1.8%	5.8%	6.4%	na	(2.7%)	5.1%
1995-2000	8.7%	6.3%	6.3%	7.3%	6.6%	1.3%	4.2%	5.3%	na	(2.4%)	0.7%
2000-2005	7.1%	11.5%	11.5%	4.6%	5.6%	1.8%	3.1%	5.5%	na	(0.7%)	2.9%
2005-2010	6.7%	2.7%	2.7%	4.2%	5.1%	1.2%	2.8%	4.0%	na	(1.1%)	1.00%

<자료> East-West Center 1997

BK GO : BUNKER GASOIL

DB CRUDE : DIRECT BURNING OF CRUDE

BK FO : BUNKER FUEL OIL

제품별 수요에는 BK GO, DB CRUDE, BK FO 포함

입의존도가 '95년의 약 7%에서 2000년까지 오히려 약 9%수준선으로 증가하고 이후 체감하여 2005년에 5%이하로 감소가 예상됨.

나. 중국

1) 수요전망

가) 현황

○ 중국은 '80년대 경제 개혁 및 개방화 추진의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85년 이후 석유 소비도 연평균 6.4%의 급증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96년도 기준 3,333천 b/d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를 기록하고 있음.

나) 전망

○ 앞으로는 인구 증가, 산업화의 진전,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 등으로 석유 소비의 급속한 증가추세는 지

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0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2위의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인 석유 소비 증가율을 보면, '95~2000년 사이에는 5.3%, 2000~2005년 사이에는 5.5%, 2005~2010년 사이에는 4.0%의 소비증가가 전망됨.
- 유종별로는 석유화학 설비 확장과 수송부문의 소비 신장으로 LPG 및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가 타 유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원유 생산 전망

가) 현황

-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95년 기준으로 2,976천b/d이었으며, 이중 내수용으로 2,599천b/d가 소비되었고, 377천b/d는 수출하였음.
- 96년 산유량은 3,140천b/d로 95년 대비 4.5%가 증가 8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해양 유전과 서부지역 유전에서 산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전망

- 향후 중국의 석유 생산은 매장량이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치 못하고, 또한 서부지역의 신규발견 유전지대들은 수송시설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향후, 수년내에 상업적 생산이 어려움에 따라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3) 석유정제능력 전망

가) 현황

- 상압정제 시설기준으로 4,343천b/d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원유공급의 부족과 수입원유 처리에 부적절한 정제 시설 때문에 설비 가동율이 매우 저조함.

원유 생산, 수요,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 천b/d)

	API/2	승리	대경	해상	신강·타림	other	합계
		23.0	33.0	37.0	32.0	31.0	30.6
1995	생산	600	1,120	168	253	835	2,976
	수요	555	828	141	253	822	2,599
	수출	45	292	27	0	13	377
1997	생산	585	1,105	313	320	837	3,160
	수요	565	860	218	320	837	2,800
	수출	20	245	95	0	0	360
2000	생산	585	1,100	340	420	825	3,270
	수요	585	940	250	420	825	3,020
	수출	0	160	90	0	0	250
2005	생산	585	950	260	600	975	3,370
	수요	585	940	200	600	975	3,300
	수출	0	10	60	0	0	70
2010	생산	550	850	210	900	990	3,500
	수요	550	850	210	900	990	3,500
	수출	0	0	0	0	0	0

〈자료〉 East-West Center 1997

- 자원의 분포와 분배, 수송여건 및 관리 시스템 등 제 요인들의 영향으로, 실제 시장 수요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내륙지역 정제공장들의 가동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고유황 원유의 처리에 필요한 고도화 기술과 설비들이 취약하여 경질제품의 생산 수율이 매우 낮음.

- '95년 생산 휘발유의 50%만이 옥탄가 70을 유지하였으며, 아직도 40%가 유연 휘발유임.

- 경유도 세탄가가 약 40으로 낮고 안정성이 불량함.

나) 전망

- 향후의 석유소비 급증에 대비하여 원유처리 능력의 확충, 석유제품 소비의 경질화에 대비한 2차정제시설의 확충, 원유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중등원유에 맞는 정제설비의 신·증설 및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수송체계의 정비를 추진중에 있음.

- 제 9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96~2000)까지 총

〈 중국의 정제부문의 최근의 동향과 문제점 〉

정제능력의 확대목표 (제 9차 5개년 계획)

- 1995년의 1.9억톤 (380만b/d)~2000년에는 2.2~2.3억톤 (440만~460만b/d)
- 기존 정유공장의 가동율을 높혀 최대한으로 대처
 - 기본적으로 정제능력의 부족이 없다고 인식
 - 기존 정유공장을 확장, 개조
 - 특히 茂名, 鎮州, 鎮海 등 연안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을 40만b/d에서 80만b/d로 증강하고 중등원유의 처리를 위한 탈황설비를 증설
- 해외에서 정제공정상의 특허권을 구입하여 국산화를 추진

외자 합작 정유공장 확장, 신설계획의 지연

- TOTAL사와의 大連 정유공장 건설계획이 유일하게 실현
 - SINOCEM에 대신한 SINOPEC의 참여로 겨우 가동
- 합작 프로젝트 지연의 배경
 - 경제개발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외자도입 불허
 - SINOPEC의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 도입에 소극적
 - 자금조달면에서의 제약 (소요자금의 1/3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

4,600만 수준까지 정제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98년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계획에 따르면 '97년에 250천b/d 규모의 신규 정유공장이 건설되어 '97년말에는 총 4,593.4천b/d의 정제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98년에는 기

존 정유시설의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98년 말에는 4,663.4천b/d까지 정제 능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제 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동안 경질제품의 비중을 70~72%로 제고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생산비율을 1.4이상으로 끌어 올리며, 2000년까지 유연휘발유의 생산을 증지할 예정임.
- 중국은 정제능력의 증대를 위해 정제시설 신·증설 등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그 성과가 미미하여 2000년 이후에나 급속한 정제능력의 대폭적인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석유수급 전망

가)현황

- 급증하는 석유수요에 비해 중국의 석유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큰 폭으로 부족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석유 수출역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석유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92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음.
- 중국은 90년대 들어 정유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하

총 정제능력 현황 및 전망

(단위 : 천b/d)

	1996	1997	1998	2000	2005
상압정제설비	4,343.4	4,593.4	4,663.4	4,773.4	6,063.4
감압정제설비	1,865.0	1,985.0	2,020.0	2,055.0	2,670.0
코킹	261.0	299.0	299.0	299.0	315.0
접촉분해설비	1,127.8	1,234.8	1,239.8	1,328.8	1,526.8
수소화분해	184.0	252.0	252.0	264.0	460.0
열분해/비스브레이커	238.8	238.8	238.8	238.8	238.8
접촉개질	170.0	227.0	228.0	230.7	387.7
중질유분처리	349.0	445.0	445.0	476.6	833.6
경유탈황					
잔사유탈황	42.0	72.0	72.0	102.0	285.0

〈자료〉 East-West Center(EWC)

여 왔으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남부지역의 정유공장들은 국내 원유 수송시설의 빈약으로 인한 원유 공급의 장애로 가동율이 저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품 수입이 급증하였음.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94년 제품 수입 증지 및 중앙관리, 가격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바 있음.

○ 유종별 수급현황을 보면,

LPG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15.3%의 급속한 수요 신장세를 보였음. 중국의 LPG수요는 주로 취사, 난방, 상업용으로 사용되며, 석유화학 원료로는 15%만이 사용되고 있음. 95년 LPG의 수입규모는 전년비 50%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LPG가 일반상품으로 분류되어 여타 석유제품과 같이 수입쿼터 등의 제제가 없기 때문임.

나프타

석유화학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85~'95년 사이에 연평균 12.1%의 급속한 수요 신장세를 보였음.

휘발유·경유·항공유

석유 수급 현황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소비
1990	2,280.0	67.1	121.4	2,225.8
1991	2,403.8	101.4	117.7	2,387.4
1992	2,548.6	164.6	125.2	2,588.0
1993	2,713.6	376.5	83.3	2,874.4
1994	2,666.7	297.3	84.1	3,003.1
1995	2,869.7	358.2	92.3	3,164.7
1996(잠정치)	2,994.0	418.0	79.0	3,333.0

<자료> East-West Center 1997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수송 수요의 증가로 '85~'95년 사이에 휘발유는 연평균 8.7%, 경유는 8.5%, 항공유는 2.3%의 수요 증가세를 보였음. 수송용의 경우 그동안 경유공급의 부족으로 휘발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중유

'85~'95년 사이에 타유종에 비해 낮은 1.8%의 수요 증가를 보였음.

○ 수출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유종에서 수출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나, 경유, 중유, LPG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를 일부 수출하고 있음.

-중국의 석유 제품 주수입국은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이며, 인도가 주수출국임.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은 Sinochem과 Unipecc 두 국영기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주로 현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짐.

* Unipecc는 Sinopec과 Sinochem의 50:50 합작회사

-외국기업은 석유 제품의 수입은 물론 판매까지 금지되어 있음.

-단 LPG와 윤활유는 Sinochem이나 Unipecc 이외에도 수입이 가능.

나) 전망

○ 현재 90%수준인 중국의 석유제품 자급율은 정제설비의 확충, 정제 가동율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200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신규 정제설비 건설에 대한 외자의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급율은 2005년까지 다시 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석유 제품의 수입량은 계속 증가, 2000년 경에는 66만b/d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유종은 현재와 같은 경우, LPG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유종별 수급전망을 보면

LPG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청정연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정제능력의 확장이 LPG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해외로부터 큰 폭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나프타

석유화학산업 설비의 신증설 및 보격 가동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큰폭의 수요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부문의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 석유 수요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석유화학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2005년 이후에는 나프타 수요의 4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급 전망 (1997)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161	89	0	250
나 프 타	159	19	0	178
휘 발 유	814	15	44	785
등유/항공유	115	13	8	120
경 유	1,077	128	20	1,185
중 유	549	161	3	707
기 타	185	10	5	190
합 계	3,060	435	80	3,415

<자료> East-West Center 1997

석유 수급 전망 (1998)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168	104	0	272
나 프 타	166	23	0	189
휘 발 유	848	24	38	834
등유/항공유	121	15	7	129
경 유	1,122	159	18	1,263
중 유	553	173	6	720
기 타	192	11	5	198
합 계	3,171	509	74	3,605

<자료> East-West Center 1997

석유 수급 전망 (2000)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186	134	0	320
나 프 타	181	27	0	208
휘 발 유	920	60	25	955
등유/항공유	136	15	5	146
경 유	1,219	221	15	1,425
중 유	560	191	8	743
기 타	204	16	5	215
합 계	3,406	664	58	4,012

<자료> East-West Center 1997

석유 수급 전망 (2005)

(단위 : 천b/d)

	생산	수입	수출	수요
L P G	256	194	0	450
나 프 타	246	112	0	358
휘 발 유	1,264	73	12	1,325
등유/항공유	186	4	7	183
경 유	1,682	205	12	1,875
중 유	755	76	9	822
기 타	258	0	8	250
합 계	4,646	665	48	5,263

<자료> East-West Center 1997

휘발유·경유·항공유

2000년까지는 경유차량의 증가와 휘발유 사용 트럭의 경유사용 대체로 경유수요가 휘발유 수요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로 항공유의 급속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경제가 선진 수준에 진입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로 석유 수요의 경질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0년에서 2005년간 휘발유 수요가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수요 증가분을 자체 정제능력 확대로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경우, 휘발유는 2000년에 35천b/d, 2005년에 61천b/d, 경유는 2000년에 206천b/d, 2005년에 193천b/d의 순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정제능력 확장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 수입량이 보다 큰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음.

중유

향후 발전용 중유 수요는 석탄대체 정책에 의해 정체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국제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병커링용 수요와 산업용 수요를 중심으로 1~2% 수준대의 완만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완만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유는 2000년에 183천b/d, 2005년에 67천b/d의 순수입이 예상된다

5) 우리나라의 대중국 석유제품 교역현황 및 전망

가) 현황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주로 산업용인 항공유, 경유, 중유 (B-C), 및 나프타를 수출하고 난방용으로 등유와 경유를 수입하였음.

○ 이를 유종별로 보면

항공유

중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93년 이후 수출을 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비교적 소규모인 7천b/d를 수출하였으나 연평균 125%의 수출 증가가 이루어져 왔음.

경유

우리나라는 황함량 1.0%의 경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내수용으로 황함량 0.1% 경유를 수입하고 있음. '96년기준으로 27천 b/d가 순 수출되었으며, '92년 이후 연평균 72%의 수출증가율을 보여왔음.

중유

'94년이후 본격적인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92년 이후 연평균 12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등유

국내 수급조절용으로 소규모를 수입하고 있음.

나프타

'94년 이전에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연료로서 중국으

대중국 수출 현황

(단위 : 천b/d)

	1992	1993	1994	1995	1996
경유	8 72,885	14 115,965	15 116,821	30 226,751	31 313,460
중유	8 39,799	6 22,327	19 84,608	22 115,407	47 282,562
나프타	0 0	0 0	2 10,117	3 18,877	5 37,239
항공유	0 0	0 552	2 13,484	5 35,531	7 70,403
기타	1 8,206	0 1,552	3 18,775	6 38,924	11 78,803
계	17 120,890	20 140,369	41 243,805	64 435,490	101 782,467

<자료> East-West Center 1997

대중국 수입 현황

(단위 : 천b/d)

	1992	1993	1994	1995	1996
등유	0 2,787	0 2,061	0 3,233	1 8,048	4 45,871
경유	0 0	4 40,711	6 44,787	4 36,972	4 41,016
B-C	0 0	0 0	0 0	0 0	0 0
나프타	1 9,097	0 670	1 5,261	0 0	0 0
항공유	0 0	0 0	0 546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2,365
계	1 11,884	5 43,443	7 53,828	5 45,021	8 89,252

<자료> East-West Center 1997

로 부터 소규모의 나프타를 수입해 왔으나, 그동안 국내 정제능력의 증대와 중국 석유화학산업 투자확대에 따른 중국의 수요 증가로 '94년부터 대 중국 수출량이 연평균 75%증가함.

나)전망

○ 향후 양국간의 석유제품 교역은 국내 석유정제 능력의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여력이 제고됨에 비해 중국의 석유수요 급증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요구의 증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중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경유, 중유, 나프타 및 항공유 중심의 수출 확대가 전망됨.

○ 이를 유종별로 보면

항공유

중국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물량 측면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00년 이후 중국이 항함량을 0.5%에서 0.2%로 낮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경유

중국의 산업화 가속으로 수출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은 국내 정제능력의 증대로 감소하거나 정체가 예상됨.

중유

국내 석유 수요의 경질화 추세의 가속으로 인한 국내 수요 둔화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상호 작용하여 향후 높은 수요증가세가 예상됨.

등유

소규모의 수급조절용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나프타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으로 부터 원료 공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산업의 수요를 감안할 경우 수출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계속>

경제용어

NTE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통상법에 의거, 미국의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실질적 장벽이 되는 교역상대국의 법, 정책, 관행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에서 수집되는 불만사항과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된다.

이 연례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 정부조달 불공정 관행국 지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페셜 301조나 슈퍼 301조와 같은 쌍무적 통상압력의 대상국가와 대상분야를 선정하며 최악의 경우 이를 빌미로 교역상대국을 무역제재 대상국으로 지목할 수도 있다.